

호세아 4-14장의 구성과 메시지: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김래용(협성대)

1. 서론

호세아서 연구 초기에 학자들은 호세아서를 2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호세아서를 1-3장과 4-14장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선지자의 개인적 경험을 다루는 작은 모음집이고 후자는 말씀과 시를 모아놓은 연속성 없는 큰 모음집으로 호세아서의 2개의 주요한 논쟁적 주제들(우상숭배와 강대국 의지)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았다.¹ 맥키팅(Henry McKeating)은 호세아 1-3장이 1인칭과 3인칭 표현을 통해 선지자의 결

* 이 연구는 2023년도 협성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연구임(2023-0047).

1 S. R. Drive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1), 283; Artur Weiser, *The Old Testament: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1), 234-235; Otto Eissfeldt,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shers, 1965), 385; Ernst Sellin/Geor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423.

혼과 관련된 메시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단일 기사가 아니며, 호세아 4-14장은 대부분 심판 신탁으로 내용의 유사성은 있지만 주제어로 연결되는 식별할 만한 패턴이 없다고 보았다.² 앤더슨(Francis I. Andersen)과 프리드만(David Noel Freedman)은 호세아서가 1-3장과 4-14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예언자와 가깝거나 혹은 그의 가족의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구성되었고, 후자는 다른 사람에 의해 구성되었는데, 이 두 단락이 결합되기 이전에 한동안 독립적으로 존재했다고 보았다.³ 최근에 키프(Alice A. Keefe)는 호세아서를 1-3장과 4-14장으로 구분하고, 전자는 여성의 출산 및 여성의 성적 범죄의 모티프들과 관련된 상징적 행위와 메타포적 이미지의 복합체라고 보았으며, 후자는 정치적이고 제의적인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신탁의 모음집인데, 정치 및 제의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행위의 이미지가 사용된다는 점에서 호세아 1-3장과 연결된다고 보았다.⁴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호세아서를 3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시도가 있었다. 볼프(Hans Walter Wolff)는 호세아서를 1-3장, 4-11장, 12-14장으로 나누었고,⁵ 루돌프(Wilhelm Rudolph)와 예레미야스(Jörg Jeremias)도 호세아서를 3개의 단락(호 1-3장; 4-11장; 12-14장)으로 나누어 각각의 단락의 특징과 상호관계성을 분석하였다.⁶ 이(Gale A. Yee)도 호세아서를 3

2 Henry McKeating, *Amos, Hosea, Mic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9-10.

3 Francis I. Andersen/David Noel Freedman, *Hosea* (AB 24;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57-59.

4 Alice A. Keefe, *Woman's Body and the Social Body in Hosea* (JSOTSup 338;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4-16.

5 Hans Walter Wolff, *Hose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xxix-xxxii. 원제는 Hans Walter Wolff, *Dodekapropheten 1 Hose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5).

6 Wilhelm Rudolph, *Hosea*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6), 25-27; Jörg Jeremias, *Der Prophet Hose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18-20.

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전승의 최종 편집자가 각 단락을 마감하는 결론을 구성하여 삽입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녀는 호세아서의 3개의 단락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대표하는 독특한 모티프에 의해 특징화되는데, 호세아 1-3장은 결혼 모티프를 통해, 호세아 4-11장은 젊은 이스라엘 메타포를 통해, 호세아 12-14장은 다시 결혼 모티프를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묘사한다고 보았다.⁷ 이는 이러한 관계를 아내/이스라엘과 하나님(호 1:1-3:5), 아들/이스라엘과 하나님(호 4:1-11:11), 아내와 아들/이스라엘과 하나님(호 11:12-14:9)으로 묘사했다.⁸

그런데 최근에 호세아서를 4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시도가 있었다. 호세아 1-3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보고, 호세아 4-14장을 4장 1-3절의 부제와 관련하여 강조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3개의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다.⁹ 쿤터(Allen R. Guenther)는 호세아 4-14장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는데, 호세아 4장 4절-6장 3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호세아 6장 4절-11장 11절은 ‘가족의 사랑의 부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호세아 11장 12절-14장 9절은 ‘진실의 부

이 외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호세아서를 3개의 단락으로 나눈다. Bruce C. Birch, *Hosea, Joel, and Amo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12; Daniel J. Simundson,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3-5; J. Andrew Dearman, *The Book of Hose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16-21; Terence E. Fretheim, *Reading Hosea-Micah*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3), 7-8 참조.

7 Gale A. Yee,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SBLDS 102; Atlanta: Scholars Press, 1987), 51.

8 Gale A. Yee, "The Book of Hosea", Leander E. Keck et al. (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213-214.

9 비비(H. D. Beeby)는 호세아 4-14장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누지만 다른 관점을 적용한다. H. D. Beeby, *Hosea: Grace Abounding*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9), 47 참조.

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호세아 1-3장에 언급되었던 호세아의 3명의 자녀 이름이 이러한 3개의 단락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첫 번째 단락은 로암미, 두 번째 단락은 로루하마, 세 번째 단락은 이스라엘).¹⁰ 스미스(Gary V. Smith)도 호세아 4-14장을 3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이 단락들이 3개의 부재와 관련된 하나님의 소송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았다. 즉 호세아 4장 1절-6장 6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 대한 하나님의 소송'을 다루고, 호세아 6장 7절-11장 11절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헌신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소송'을 다루며, 호세아 11장 12절-14장 9절은 '거짓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소송'을 다룬다고 보았다.¹¹

이처럼 호세아서는 2-4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분석되었다. 2개 혹은 3개의 구조 분석은 일반적인 내용에 근거한 것이지만, 4개의 구조 분석은 호세아 4장 1-3절의 3개의 부재와 관련된 주제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호세아서에서만 볼 수 있는 쿼터와 스미스의 독특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이러한 주장은 호세아 4-14장이 연속성 없는 신탁들의 큰 모음집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호세아서의 구조와 메시지의 상관관계를 밝힌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쿼터와 스미스는 이러한 주장을 위해 호세아 4-14장의 3개의 단락에서 강조되는 공통된 메시지나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였다. 한마디

10 알렌 R. 쿼터, 「호세아, 아모스」 (임요한/최태선 옮김), (논산: 도서출판 대장간, 2018), 23; 원제는 Allen R. Guenther, *Hosea, Amos* (Harrisonburg: Herald Press, 1998). 특별히 호세아 1-3장에 언급된 호세아의 3명의 자녀의 이름이 호세아 4-14장의 3개의 부재와 관련된다는 주장은 두 단락의 밀접한 관련성 외에도 후자가 3개의 부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방증한다.

11 Gary V. Smith,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Hosea, Amos, Micah* (Grand Rapids: Zondervan, 2001), 39.

로 3개의 부재와 관련된 개념을 명확하게 각 단락의 핵심 메시지와 연결하여 정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3개의 단락에서 공통적으로 반복 강조되는 4개의 핵심 메시지(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우상숭배의 문제, 강대국 의지의 문제, 백성들에 대한 권면)를 선별하여, 이러한 핵심 메시지가 각 단락에서 강조되는 부재에 각각 기초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마디로 호세아 4장 4절-6장 3절은 ‘다아트 엘로힘(דַּאֲתֵי אֱלֹהִים)의 부재’를, 호세아 6장 4절-11장 11절은 ‘헤세드(חֶסֶד)의 부재’를, 호세아 11장 12절-14장 9절은 ‘에메트(אֱמֶת)의 부재’를 4개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세아 4-14장이 연속성 없는 큰 모음집이 아니라 3개의 부재와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3개의 단락으로 나뉘며, 특별히 각각의 단락이 4개의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2. 호세아 4-14장의 구성과 메시지

호세아 4장 1-3절의 역할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은 거의 동일하다. 이 구절이 호세아 4장 이하의 서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¹² 앤더슨과 프리드만은 호세아 4장 1-3절이 야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소송과 관련되기보다는 호세아 4-7장의 서론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¹³ 디어맨(J.

12 James L. Mays, *Hosea* (London: SCM Press Ltd., 1969), 61;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29-31. 원제는 James Limburg, *Hosea-Micah* (John Knox Press, 1988); Bruce C. Birch, *윗글*, 46; Daniel J. Simundson, *윗글*, 44; 김필희, 「호세아 주석서」(한국구약총서 19;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0), 25-26, 135 참조. 다른 주장을 위해 Marvin A. Sweeney, *The Twelve Prophets Vol.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41 참조.

13 Francis I. Andersen/David Noel Freedman, *윗글*, 331.

Andrew Dearman)은 이 구절이 호세아 4장의 서론 역할 뿐만 아니라 호세아 4-11장의 서론 역할도 한다고 보았다.¹⁴ 비비(H. D. Beeby)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구절이 3개의 역할을 한다고 보았는데, 호세아 1-3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호세아 4-14장의 서론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소/고발을 위한 소송을 요약한다고 보았다.¹⁵ 따라서 호세아 4장 1-3절은 호세아 4장 이하의 서론 역할을 위해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하여 호세아 4-14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고자 한다.

1) 호세아 4장 4절-6장 3절: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

호세아 4-14장의 첫 번째 단락은 호세아 4장 4절-6장 3절인데, 이것은 **יְדַעַת אֱלֹהִים** (다아트 엘로힘/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부재는 이 단락의 서론을 구성하는 4장 6a절에서 볼 수 있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יְדַעַת)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데, 처음부터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로 인한 심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것이 이 단락의 전체 메시지에서 부각되고 있다. 즉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우상숭배의 문제, 강대국 의지의 문제, 백성들에 대한 권면이라는 4개의 핵심 메시지가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를 중심으로 기술된다. 한마디로 이 단락 전체가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4 J. Andrew Dearman, *윗글*, 145.

15 H. D. Beeby, *윗글*, 47-48.

(1) 아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호세아 4장 4-10절은 아웨와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아웨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너의 하나님’(אלהיך)과 ‘나의 백성’(עמי)이라는 표현으로 묘사된 것처럼 친밀한 언약 관계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다아트 엘로힘)이 없어서 둘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제는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4번의 유사한 표현의 반복을 통해 강조된다.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6a절). ‘네가 지식을 버렸도다’(6bα절). ‘네가 너의 하나님의 토라를 잊었도다’(6bβ절). ‘이는 그들이 아웨를 버리고 [토라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이라’(10b절).¹⁶ 4개의 부정적인 표현(מבלי/없어서, מאסת/버리다, תשכח/잊다, עזבו/버리다)를 통해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가 관계 파기의 원인이며 심판의 원인임을 강조한다. 이것은 동해복수법(talion, 출 21:23-25 참조)을 통해 한 번 더 강조된다.¹⁷ ‘네가, 네가 지식을 버렸기에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הרעת מאסת ואמאסתך). ‘네가 너의 하나님의 토라를 잊었기에 나도 너의 아들을 잊을 것이다. 또한 나도’(גם אני יניח אשכח בניך גם אני) 6b절). 동일한 동사(‘버리다-버리다’, ‘잊다-잊다’)를 반복 사용하여 최악의 행위에 대해 아웨가 응징하는 형태를 띠며, 또한 주격 대명사를 동사의 앞(‘네가 … 네가 버렸다’/ת/מאסת … אתה)과 동사의 뒤(‘내가 잊을 것이다. 또한 내가’/גם אני … אשכח)에 추가로 배치하여 심판의 대상과 심판의 주체를 명시함으로써 관계 파기로 인한 심판을 강조한다. 이처럼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는 아웨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파기 및 심판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16 10b절의 번역과 설명을 위해 김정훈, 「호세아 주석」(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176-180; A. A. Macintosh,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Hosea* (Edinburgh: T&T Clark Ltd., 1997), 147-150 참조.

17 김필화, *잊글*, 152-153.

(2) 우상숭배의 문제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로 인해 야웨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는데, 이것이 우상숭배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로 인해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호세아 4장 11절-5장 7절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모든 계층이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나의 백성이 그의 나무에게 묻고, 그의 막대기는 그에게 고하도다(호 4:12a).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호 5:3b).’ ‘나무에게 묻다’, ‘행음하다’, ‘더러워졌다’라는 표현은 우상숭배의 다른 표현이며, ‘나의 백성’, ‘에브라임’, ‘이스라엘’과 같은 표현은 야웨의 백성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했음을 함축한다.¹⁸ 호세아 5장 1-2절은 그 이유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속(장로집단)과 왕족들이 백성들에게 울무와 그물과 함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호 5:1-2).¹⁹ 한마디로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도로 인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그릇된 인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호세아 4장 12b절은 ‘이는 그가[나의 백성] 음란의 영에 미혹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나 음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로 ‘음란의 영’(עֲוֹנוֹתָיִם)이 백성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들 안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이다.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를 말하는 것이다.²⁰ 호세아 5장 4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4a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이 야웨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18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명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정중호, 「설교자를 위한 호세아 해석」(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6), 215-216 참조.

19 J. Andrew Dearman, 윗글, 171; 김필희, 윗글, 177-180.

20 Hans Walter Wolff, 윗글, 99-100.

라'(4b절). 여기에서도 음란의 영의 역할이 강조된다. 음란의 영이 백성들로 하여금 야웨께 돌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야웨를 알지 못하게 하여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로 인한 우상숭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세아 4장 4절-6장 3절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철저하게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와 관련짓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강대국 의지의 문제

강대국 의지의 문제도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와 연결되어 묘사된다. 이것은 호세아 5장 8-15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에브라임의 심판 이유를 통해 잘 드러난다. 11절은 '에브라임이 억압당하고 심판으로 깨어졌도다. 이는 그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강조된다. 여기에서 '사람의 명령'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צַבְרִים**(차브)인데, '명령'(KJV), '우상들'(NIV), '헛된 것'(RSV), '가치 없는 것'(LXX)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²¹ 그러나 이 단락이 강대국 의지의 문제로 인한 심판에 초점을 맞추기에 '사람의 명령'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²² 당시 에브라임이 앗수르와 애굽을 저울질하며 이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호 12:1 참조). 야웨보다 강대국의 명령을 더 의지했다는 점에서 '사람의 명령'이라는 표현은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에 대한

21 스투어트(Douglas Stuart)는 역사적 배경에 기초하여 히브리어 **צַבְרִים**(차브)를 시리아의 왕 '르신'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더글라스 스투어트, 「호세아-요나」(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232. 원제는 Douglas Stuart,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omas Nelson Publishers, 1987).

22 홍성혁은 **צַבְרִים**(차브)를 '이방과의 허무한 동맹'(이방과의 동맹 motif)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동맹에 연연하다가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암시한다고 본다. 홍성혁, 「광야의 이상을 꿈꾸는 예언자 호세아」(서울: 제라서원, 2011), 106.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12-13절은 본격적으로 강대국 의지의 문제를 다루는데,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을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와 연결한다. 12-13a절은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²³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다(וְאֲנִי כְעַשׂ לְאֶפְרַיִם) … 에브라임은 그의 병을 보고(וַיִּרְא אֶפְרַיִם אֶת־חֲלָיו) … 에브라임이 앓수르로 갔다(וַיֵּשֶׁלַח אֶל־מֶלֶךְ אֲשּׁוּר)’. 그리고 그는 아렘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וַיִּשְׁלַח אֶל־מֶלֶךְ אֲרָם).’ 4단계의 전개를 통해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을 묘사하는데,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에 초점을 맞춘다. 질병을 주신 야웨 → 질병에 대한 인식 → 치료를 위해 앓수르로 감 → 앓수르 왕에게 요청. 이러한 4단계의 전개는 야웨의 주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점점 야웨로부터 멀어져 강대국을 의지하게 된 에브라임의 어리석은 행위를 그리는데, 초점이 야웨를 떠나 강대국을 의지했다는 것이다. 결국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로 인한 강대국 의지를 지적하는 것이다.

(4) 백성들에 대한 권면

이제까지 이 단락(호 4:4-6:3)은 야웨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로 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예로 우상숭배의 문제와 강대국 의지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백성들에 대한 권면도 당연히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에 관한 것을 다룬다. 한마디로 야웨를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권면이다. 이것은 호세아 6장 1-3절에 잘 드러나는데, 2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첫째는 야웨를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라, 우리가 야웨께로 돌아가자’(יְהוָה לָנוּ וְנָשׁוּבָה אֵלָיו, 1a절). ‘우리가 알자. 우리 야웨를 알기 위해 힘쓰

23 12-13a절에 에브라임과 더불어 유다가 언급된다. 유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Grace I. Emmerson, *Hosea: An Israelite Prophet in Judean Perspective* (JSOTSup 28; Sheffield: JSOT Press, 1984), 68-70 참조.

자’(וַיִּדְעָה נַרְדְּמָה לְדַעַת אֶת־יְהוָה). 권면과 관련된 모든 표현들이 다아트 엘로힘과 관련된다. 특별히 3개의 1인칭 복수 동사(נִשְׁוֹבָה/우리가 돌아가자, נִדְעָה/우리가 알자, נַרְדְּמָה/우리가 힘쓰자)는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를 회복하기 위한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야웨께로 돌아가서 그를 알고 또한 그를 더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철저히 다아트 엘로힘의 회복을 위한 표현들이다. 둘째는 야웨에 대한 지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4개의 ‘3인칭 동사+1인칭 복수 접미어’를 사용해 야웨의 치료와 구원의 능력이 강조된다. ‘그가 우리를 낮게 하실 것이다’(רָפְאֵנִי, 1a절) ‘그가 우리를 싸매주실 것이다’(חָבְשֵׁנִי, 1b절) ‘그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חַיֵּנִי, 2a절) ‘그가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קִמְּנֵנִי, 2b절). 4개의 표현을 통해 야웨의 실질적인 능력을 강조함으로써 야웨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백성들이 이제까지 야웨에 대해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백성들에 대한 권면도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와 관련된다.

2) 호세아 6장 4절-11장 11절: 헤세드의 부재

호세아 4-14장의 두 번째 단락은 호세아 6장 4절-11장 11절인데, 이 단락은 חֶסֶד(헤세드/인애)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호세아 6장 4절은 헤세드의 부재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שְׁכֵם הַלֵּךְ כְּעָנַן בֹּקֵר וְכַטְל מִן הַיַּמִּים). 하나님에 대한 에브라임의 헤세드가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사라지는 구름이나 이슬 같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하게도 헤세드에 대한 부재가 이 단락 전체의 메시지를 지배한다. 앞의 단락처럼 4개의 핵심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모든 것이 헤세드의 부재와 관련되어 묘사된다.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우상숭배의 문제, 강대

국 의지의 문제, 백성들에 대한 권면. 앞의 단락처럼 메시지가 순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4개의 핵심 메시지가 헤세드의 부재와 관련되어 강력하게 주장된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이 단락은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헤세드의 부재와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이것을 위해 히브리어 אָהַב(아하브/사랑하다)를 사용한다.²⁴ 이것은 호세아 11장 1절과 9장 15b절에서 볼 수 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애굽으로부터 내가 나의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는 4가지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첫째는 앞의 단락에서 ‘나의 백성’으로 불렸던 이스라엘이 ‘나의 아들’로 묘사된다. 관계의 성격(부자 관계)에 대한 강조이다. 둘째는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사용해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지속되었음을 묘사한다. 관계의 지속성(오래됨)에 대한 강조이다. 셋째는 ‘내가 그를 사랑하였다’(אָהַבְתִּים)라는 표현을 사용해 둘 사이가 사랑의 관계임을 묘사한다. 관계의 친밀성(사랑의 관계)에 대한 강조이다. 특이한 것은 헤세드 대신 아하브가 사용된다는 것이다. 넷째는 ‘애굽으로부터 내가 불렀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야웨가 구원자임을 묘사한다. 관계의 본질(구원자와 구원의 대상)에 대한 강조이다. 이런 점에서 이 구절은 둘 사이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예문이 되고 있다.

호세아 9장 15b절도 둘 사이의 관계를 묘사하는데, 여기에서는 관

24 메이스(James L. Mays)는 어떤 영어 단어도 히브리어 헤세드를 만족할 만하게 묘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헤세드가 “love, leal love, steadfast love, kindness, piety, religiosity, and devotion” 등으로 번역된다고 보았다.” James L. Mays, *윗글*, 63. 클락(Gordon R. Clark)은 헤세드와 유사한 단어로 אָהַב(love)를 비롯해 חַסְדִּים(favour), רַחֲמִים(compassion), אֱמוּנָה(faithful) 등을 언급한다. Gordon R. Clark, *The Word Heseḏ in the Hebrew Bible* (JSOTSup 15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263–268.

계 파기에 초점을 맞춘다. ‘내가 그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모든 지도자들은 반역한 자니라.’ 과거에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아하브를 사용해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²⁵ 특별히 ‘내가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리라’(לֹא אוֹהֵב אֶתְהֶֹם)는 표현은 출애굽 이전부터 호세아 당시까지 야웨의 사랑이 계속되었음을 방증한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랑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야웨에 대한 백성들의 반역 때문이다. 야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반역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야웨에 대한 헤세드의 부재를 반역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의 반역의 내용은 무엇인가? 앞의 단락처럼 이것은 우상숭배의 문제와 강대국 의지의 문제로 설명된다.

(2) 우상숭배의 문제

이스라엘의 반역 행위 중의 하나는 우상숭배이다. 호세아 11장 1-4절은 우상숭배의 문제를 다루는데, 이것을 헤세드의 부재와 연결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야웨의 사랑을 배신하고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신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야웨의 사랑의 행위가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²⁶ 여기에서도 아하브가 사용된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는 그를 사랑했다’(1a절). ‘애굽으로부터 나는 나의 아들을 불렀다’(1b절).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나의 팔로 안았다’(3a절). ‘나는 사랑의 줄로 너

25 호세아서와 고대 근동에서의 ‘사랑(love) 언어’의 용례를 위해 박경식, “호세아의 결혼 비유에 담긴 사회정치적 수사학 연구”, 『구약논단』 68집 (2018년 6월), 77-83 참조.

26 Hans Walter Wolff, *윗글*, 199.

회를 이끌었다'(4aα절).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목에서 멍을 벗기는 자 같이 되었다'(4aβ절). '나는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4b절). 6개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야웨의 지극한 사랑을 묘사한다. 특별히 1인칭 동사 6개(אָהַבְתִּים, קָרָאתִי, תְּרַגְּלִתִּי, אֲמַשְׁכֶּם, אֶהְיֶה, אֲט)를 사용해 사랑의 주체가 야웨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사랑의 줄로'(עֲבֹתוֹת אֲהָבָ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백성들과의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는 야웨의 헤세드를 강조한다.²⁷ 그런데 이러한 야웨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2절은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야웨에 대한 배은망덕과 관련하여 묘사한다. '그들[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그들은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그들은 새긴 우상들에게 분향하였다'(וַיִּבְחֹרוּ וְלַבְּעָלִים וְקִטְרוֹן)'. 선지자를 통한 야웨의 사랑의 행위를 앞에 배치하고, 뒤에 이스라엘의 배신행위를 배치하여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을 강조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가 철저히 야웨의 사랑에 대한 배신에서 비롯되었음을 부각하는 것이다. 특별히 호세아 9장 10b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의 이유가 우상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바알브올에 가서, 그들은 부끄러운 것에게 자신을 드렸고, 그들은 자신이 사랑했던 [우상]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었다.' '그들이 사랑했던 [우상]처럼'(כַּאֲהָבָם)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이 우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대했음을 강조한다(참조 렘 2:25; 8:2; 14:10; 호 2:12, 13). 일반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묘사되던 우상이 여기에서는 사랑의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하브를 사용해 야웨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숭배가 야웨에 대한 헤세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한다.

27 윗글, 199-200.

(3) 강대국 의지의 문제

이스라엘 반역 행위 중의 다른 하나는 강대국 의지이다. 이 강대국 의지의 문제도 우상숭배의 문제처럼 헤세드의 부제와 관련되어 설명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강대국을 사랑하며 의지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헤세드의 부제를 묘사하기 위해 아하브라는 단어가 사용된다. 이것은 호세아 7장 8-16절과 8장 8-10절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호세아 7장 8-16절을 살펴보면, 야웨의 사랑의 행위와 이스라엘의 배신행위가 대조되고 있다.²⁸ 13b절은 ‘나는, 나는 그들을 구속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했다’(וְאֲנִי וְאֲנִי אֶפְדָּם וְהִמָּה הִבְרִו עָלַי וְאֲנִי יִסְרְתִי חֻזְקָתִי זְרוּעֵתָם וְאֲלֵי יְהִשְׁבִּירֵנָה)라고 말하며, 15절은 ‘내가, 내가 연습시켜, 내가 그들의 팔을 강하게 하였다. 그러나 내게 대하여 그들은 악을 꾀하였다’(וְאֲנִי יִסְרְתִי חֻזְקָתִי זְרוּעֵתָם וְאֲלֵי יְהִשְׁבִּירֵנָה)라고 말한다. 위의 구절들은 독특하게도 1인칭 주격 대명사(אֲנִי אֲנִי)를 1인칭 동사 앞에, 3인칭 주격 대명사(הִמָּה)를 3인칭 동사 앞에 배치하여 사랑의 주체와 반역의 주체를 강조하였다.²⁹ 굳이 필요 없는 주격 대명사를 동사 앞에 배치하여 행위의 주체와 대상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사랑과 반역의 행위는 상반된 동사들(구속하다//거짓을 말하다; 강하게 하다//악을 꾀하다)을 통해 강조되는데, 특별히 야웨의 사랑의 행위는 פָּדָה(파다)라는 동사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값을 치르고 도로 찾는 행위’를 강조할 때 쓰이는 동사를 사용해 야웨의 사랑 행위를 묘사하기 때문이다.³⁰ 배신을 일삼

28 스위니(Marvin A. Sweeney)는 특히 13절과 15절에서 야웨를 인정하지도 않고 심지어 경멸하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과 백성을 위한 야웨의 자선 행위들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rvin A. Sweeney, *유타*, 82-83.

29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서울: 성서유니온, 2015), 124.

30 김필희, *유타*, 250. פָּדָה(파다)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H. Gazelles, “פָּדָה pādā”, G. Johannes Botterweck/Helmer Ringgren/Heinz-Josef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483-490 참조.

는 이스라엘과는 반대되는 야웨의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반역 행위를 피하였는가? 호세아 7장 11절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마음이 없어서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그들은 앗수르로 갔도다’라고 말한다.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부르짖다’(קָרָא)와 ‘갔다’(הָלַךְ)라는 동사는 반역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야웨의 사랑의 행위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된다. 야웨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불렀는데(호 11:1, 2),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야웨가 선지자들 통해 돌아오라고 외칠 때(호 11:5, 7), 오히려 이스라엘은 앗수르로 갔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호세아 8장 9절은 아하브를 사용하여 묘사한다. ‘그들은 앗수르로 올라갔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에브라임은 사랑하는 자들을 고용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앗수르로 올라간 이유를 ‘앗수르를 사랑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אַהֲבָיִם)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스라엘이 야웨의 사랑을 잊고, 오히려 강대국을 사랑하고 의지했음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야웨의 사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신이 강조되었기에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다. 결국 이것은 이 단락이 추구하는 헤세드의 부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대국 의지의 문제도 헤세드의 부재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4) 백성들에 대한 권면

이 단락은 야웨께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을 강조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야웨께 돌아오지 아니했다(אַל־יָהוָה וְלֹא־שָׁבוּ אֶל־יְהוָה 호 7:10b).’ ‘그들은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עַל־לֹא שָׁבוּ 호 7:16).’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절했기 때문이

라(לְשׂוֹב) 호 11:5b).’ 당시 백성들이 야웨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당시 백성들은 야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우상과 강대국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부르짖으며 나아갔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아하브라는 동사를 사용해 이들의 반역을 묘사하였다. 한마디로 헤세드의 부재를 강조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야웨에 대한 헤세드를 회복할 것을 권면한다. ‘너희를 위해 공의를 심어라. 인애를 거두라. 너희를 위해 묵은 땅을 기경하라’(호 10:12a). 여기에서 인상적인 것은 ‘헤세드(인애)를 거두라’는 말이다. 앞에서 야웨는 헤세드의 부재를 한탄하고(호 6:4), 그가 원하는 것이 헤세드임을 강조하였다(호 6:6). 그리하여 선지자는 이제 백성들에게 ‘헤세드를 거두라’(קָצְרוּ לְפִי־חֶסֶד)고 권면하는 것이다.³¹ 더 이상 우상숭배와 강대국을 헤세드하지 말고 야웨를 헤세드하라는 말이다. 야웨와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파기와 우상숭배와 강대국 의지가 헤세드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선지자는 이제 헤세드의 회복을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3) 호세아 11장 12절-14장 9절: 에메트의 부재

호세아 4-14장의 세 번째 단락은 호세아 11장 12절-14장 9절(MT 12:1-14:10)인데, אֱמֶת(에메트/진실, 신뢰)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호세아 11장 12a(MT 12:1a)절은 에메트의 부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³²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סָבְבוּנִי בְכַחַשׁ אֶפְרַיִם וּבְמַרְמָה בֵּית יִשְׂרָאֵל). 앞의 단락에서 헤세드의 부재를 사랑(אַהֲבָה)으로 풀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에

31 Hans Walter Wolff, *윗글*, 186.

32 버취(Bruce C. Birch)는 이 구절이 호세아 12장에서 언급되는 거짓과 속임수를 위한 주제 문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본다. Bruce C. Birch, *윗글*, 104.

서는 에메트의 부재를 거짓(שקר)과 속임수(הטְוִיָּה)로 풀어 설명한다.³³ 거짓과 속임수는 표면적으로 진실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신뢰의 관계가 깨졌음을 의미한다.³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를 속임으로써 둘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12a절은 바로 이러한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에브라임/이스라엘 족속이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다. 야웨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는 척하는 거짓과 속임수를 행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러한 에메트의 부재가 이 단락 전체의 메시지에 스며들어 있다. 앞의 단락처럼 4개의 핵심 메시지(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우상숭배의 문제, 강대국 의지의 문제, 백성들에 대한 권면)에 고스란히 배어있다. 이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단락을 시작하는 호세아 11장 12a절(MT 12:1a)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שקר) /베카하쉬),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הטְוִיָּה) /베미르마) 나를 에워쌌다’라고 말한다.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된 관계라는 말이다. 이러한 관계는 야곱 전승을 부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 번 더 강조된다.³⁵ 한마디로 오래

33 하퍼(William R. Happer)는 거짓(שקר)과 속임수(הטְוִיָּה)를 에메트의 반의어로 본다. William R. Happe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Amos and Hosea* (Edinburgh: T&T Clark Ltd., 1979), 376.

34 볼프(Hans W. Wolff)는 에메트가 ‘무조건적 신뢰’(unconditional reliability)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매킨토쉬(A. A. Macintosh)는 에메트가 신뢰(reliability), 충성(loyalty), 진실(integrity)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Hans W. Wolff, *위글*, 67; A. A. Macintosh, *위글*, 127 참조.

35 홍성혁, *위글*, 194-197; 호세아 12장의 야곱 전승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위해 박경식, “호세아 12장의 오경 인용(Pentateuchal Citations)에 대한 전승비평 연구”, 『신학과 사회』 35(4)집 (2021년), 1-37; 김필희, “호세아 12장의 야곱전승”, 『구약논단』 37집 (2010년 9월), 216-236 참조.

전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호세아 12장에서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강조된다. 3가지가 인상적이다.³⁶

첫째는 야곱의 이름의 유래를 통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속임수에 능통한 존재였음을 강조한다. 3a절은 ‘그는[야곱]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말한다. 이 표현은 야곱의 속임수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히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히브리어 **קָבַץ**(아카브)는 야곱 전승에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창세기 27장 36aα절을 보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וַיִּעֲקֹבֵנִי הַיְמִינִים)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카브’는 ‘속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아카브’라는 동사를 사용해 이스라엘의 거짓과 속임수가 그의 조상인 야곱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³⁷ 한마디로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거짓과 속임수로 점철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스라엘)을 통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반항적인 존재였음을 강조한다. 3b절은 ‘그의 힘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과 겨루었다’(וּבְאוּנוֹ עָרָה אֶת־אֱלֹהִים)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그의 힘을 가지고’와 ‘겨루었다’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의미로 야곱의 ‘반항적이고 반역적인 기질’을 강조하는 표현이다.³⁸ 한마디로 이러한 조상의 영향을 받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야곱/이스라엘의 인간적 욕심을 통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이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였음을 강조한다. 12절은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

36 김희보, 「구약 호세아 주해」(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356.

37 Hans Walter Wolff, *유태교*, 211-212.

38 정중호, *유태교*, 237. 홍성혁은 “압박감 나루터의 사건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지녔다면,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쌓은 재물을 과시하며 무모하게 하나님과 대결하는 야곱의 부정적인 인간상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한다. 홍성혁, *유태교*, 197.

이스라엘이 야웨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야웨의 구원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는 것이다.³⁹ 야웨의 정체성 및 구원 능력은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나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 하나님 야웨이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는 알지 말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는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들은 나를 잊었느니라’(4-6절). 여기에서는 2가지가 강조되는데, ‘나 외에’(בְּלֹאִי, וְלֹאִי)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애굽’과 ‘광야 마른 땅’이라는 표현을 통해 야웨와 이스라엘의 친밀성을 강조한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야웨가 이스라엘을 알고 그들과 언약 관계를 형성하고 구원을 위해 힘썼는데, 어찌 우상을 숭배하느냐는 것이다. 우상숭배의 원인을 야웨에 대한 무지에서 찾고 있다.⁴⁰ 야웨의 정체성 및 그의 구원 능력을 알았다면 야웨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상숭배의 문제를 야웨에 대한 에메트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강대국 의지의 문제

이 단락은 강대국 의지의 문제를 다루는데, 에메트의 부재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이것은 호세아 12장 1절(MT 12:2)과 14장 3절(MT 14:4)절에서 볼 수 있는데, 에메트의 부재를 야웨의 능력에 대한 불신과 연결짓는다. 한마디로 야웨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강대국 의지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이다. 호세아 14장 3a절은 ‘앗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않을 것이다’(עַל-סוּסִים לֹא יִרְכָּבוּ, וְאֲשׁוּר לֹא יוֹשִׁיעֵנוּ)라는 백성들의 고백을 언급한다. 이것은 이제까지 백

39 H. D. Beeby, *윗글*, 166-167 참조.

40 Bruce C. Birch, *윗글*, 112-113 참조.

성들이 앗수르를 구원자로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다는 방증이다.⁴¹ 결국 이것이 야웨를 에메트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야웨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 야웨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호세아는 야웨만이 구원자임을 강조하였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מוֹשִׁיעַ אֵין בְּלֹתִי, 호 13:4bβ). 이처럼 구원의 능력이 야웨를 신뢰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강대국을 에메트하였다. 호세아 12장 1절은 이들의 불신의 행위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 간다. 온종일 그는 거짓과 포학을 더한다. 그들은 앗수르와 언약을 맺고, 그는 기름을 애굽에 보내고 있다.’ 야웨에 대한 에메트의 부재를 거짓과 포학으로 설명하고, 이러한 불신으로 에브라임이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였다는 것이다.⁴² 야웨의 구원 능력을 의심하였기에 강대국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대국 의지의 문제는 철저히 야웨의 구원 능력에 대한 에메트의 부재에 기초하고 있다.

(4) 백성들에 대한 권면

이 단락의 마지막에는 ‘돌아오라’는 백성들에 대한 권면이 나타나는데, 이 권면도 에메트의 부재와 연결된다. 이것은 호세아 14장 1-3절(MT 14:2-4)에 잘 드러난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웨께 돌아오라고 권면한다.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야웨께로 돌아오라’(שׁוּבוּ וְשָׂרְאֵל עַד יְהוָה אֱלֹהֵיךָ). ‘너는 말씀을 가지고 야웨께로 돌아오라’(קָחוּ עִמָּכֶם דְּבָרִים וְשׁוּבוּ אֶל־יְהוָה). 여기에서 말씀은 신앙고백을 의미한다. 형식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진정한 신앙고백이 낫

41 J. Andrew Dearman, 윗글, 340.

42 프레다임(Terence E. Fretheim)은 이들의 거짓된 행위가 강대국과의 동맹의 관점에서 읽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Terence E. Fretheim, 윗글, 68-69.

다는 것이다.⁴³ 그러면 이들이 고백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3절은 이들이 고백해야 할 것으로 2가지를 언급한다.⁴⁴ 하나는 강대국 의지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앗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우리가 말을 타지 않으리라’(3αα절). 더 이상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앓수르를 의지하며 애굽의 도움을 구하였는데, 그러한 삶을 버리라는 권면인 것이다. 특별히 ‘앗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אֲשׁוּר לֹא יוֹשִׁיעֵנו)라는 백성들의 고백은 의도적인 배치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מִוֹשִׁיעַ אֵין בְּלֹחִי) 호 13:4)는 야웨의 단언과 대조되는 표현이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 능력이 없는 앓수르를 신뢰하지 말고 능력자 야웨만을 신뢰하라는 권면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상숭배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말하지 않으리라’(3αβ절). 우상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인상적인 표현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לְמַעֲשֵׂה יָדֵינוּ)이라는 표현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여 우상의 실체와 무능함을 드러낸다. 우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무능하다는 것이다. 에메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백성들에 대한 권면이 구원 능력과 연결되어 우상숭배의 문제 및 강대국의 의지의 문제를 지적한다.

3. 결론

일부의 학자들은 호세아 4-14장이 서로 관련 없는 다양한 전승들

43 김필희, 윗글 (2010), 470-471.

44 J. Andrew Dearman, 윗글, 338-339.

의 복합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호세아 4-14장은 3개의 부재와 관련된 주제(다아트 엘로힘의 부재, 헤세드의 부재, 에메트의 부재)를 중심으로 치밀하게 조직된 구조와 메시지를 지닌 본문이다. 특별히 이러한 3개의 부재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 호세아 4-14장은 3개의 단락으로 나뉜다. 첫 번째 단락은 호세아 4장 4절-6장 3절로 다아트 엘로힘(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며, 두 번째 단락은 호세아 6장 4절-11장 11절로 헤세드(인애)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는데, 헤세드가 아하브라는 단어를 통해 설명되고 있으며, 세 번째 단락은 호세아 11장 12절-14장 9절(MT 12:1-14:10)로 에메트(진실, 신뢰)의 부재에 초점을 맞추는데, 에메트가 거짓과 속임수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3개의 단락에서 각각 강조되는 부재와 관련된 주제가 각 단락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4개의 메시지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특별히 첫 번째 단락(호 4:4-6:3)에는 야웨와 이스라엘의 관계(호 4:4-10), 우상숭배의 문제(호 4:11-5:7), 강대국 의지의 문제(호 5:8-15), 백성들에 대한 권면(호 6:1-3)과 같은 4개의 메시지가 순서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4개의 메시지가 두 번째 단락(호 6:4-11:11)과 세 번째 단락(호 11:12-14:9)에도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각각의 단락에 공통된 메시지로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4개의 공통된 메시지가 각각 3개의 부재와 관련된 주제에 기초하여 기술되고 있다. 한마디로 첫 번째 단락에서는 4개의 메시지가 다아트 엘로힘의 부재와 관련되어, 두 번째 단락에서는 헤세드의 부재와 관련되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에메트의 부재와 관련되어 기술된다. 철저하게 각각의 단락을 형성하는 4개의 공통된 메시지가 3개의 부재와 관련된 주제에 기초되어 묘사되는 것이다. 따라서 호세아 4-14장의 구조와 메시지는 3개의 부재와 관련된 주제와 4개의 공통된 메시지가 조직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독특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근주,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서울: 성서유니온, 2015).
- 김정훈, 「호세아 주석」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3).
- 김필희, “호세아 12장의 야곱전승”, 「구약논단」 37집 (2010년 9월), 216-236.
_____, 「호세아 주석서」 (한국구약총서 19; 용인: 프리칭아카데미, 2010).
- 김희보, 「구약 호세아 주해」 (서울: 충신대학출판부, 1983).
- 더글라스 스튜어트, 「호세아-요나」 (김병하 옮김), (서울: 솔로몬, 2011). 원제 Stuart, Douglas, *Hosea-Jonah* (WBC 31; Nashville: Tomas Nelson Publishers, 1987).
- 박경식, “호세아의 결혼 비유에 담긴 사회정치적 수사학 연구”, 「구약논단」 68집 (2018년 6월), 62-92.
_____, “호세아 12장의 오경 인용(Pentateuchal Citations)에 대한 전승비평 연구”, 「신학과 사회」 35(4)집 (2021년), 1-37.
- 알렌 R. 귄터, 「호세아, 아모스」 (임요한/최태선 옮김), (논산: 도서출판 대장간, 2018). 원제 Guenther, Allen R., *Hosea, Amos* (Harrisonburg: Herald Press, 1998).
- 정중호, 「설교자를 위한 호세아 해석」 (서울: 크리스천헤럴드, 2006).
- 제임스 림버그, 「호세아-미가」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4). 원제 Limburg, James, *Hosea-Micah* (John Knox Press, 1988).
- 홍성혁, 「광야의 이상을 꿈꾸는 예언자 호세아」 (서울: 제라서원, 2011).
- Andersen, Francis I./David Noel Freedman, *Hosea* (AB 24;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0).
- Beeby, H. D., *Hosea: Grace Abounding*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9).
- Birch, Bruce C., *Hosea, Joel, and Amo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7).
- Clark, Gordon R., *The Word Hased in the Hebrew Bible* (JSOTSup 15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 Dearman, J. Andrew, *The Book of Hosea*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 Driver, S. R.,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f the Old Testament*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891).
- Eissfeldt, Otto, *The Old Testament: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and Row,

- Publishers, 1965).
- Emmerson, Grace I., *Hosea: An Israelite Prophet in Judean Perspective* (JSOTSup 28; Sheffield: JSOT Press, 1984).
- Fretheim, Terence E., *Reading Hosea-Micah* (Macon: Smyth & Helwys Publishing, Inc., 2013).
- Gazelles, H., “**הוֹשֵׁעַ** pāḏā”, G. Johannes Botterweck/Helmer Ringgren/Heinz-Josef Fabry(eds.),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 Vol. XI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1), 483-490.
- Happer, William R.,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Amos and Hosea* (Edinburgh: T&T Clark Ltd., 1979).
- Jeremias, Jörg, *Der Prophet Hosea*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3).
- Keefe, Alice A., *Woman's Body and the Social Body in Hosea* (JSOTSup 338; London: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 Macintosh, A. A.,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Hosea* (Edinburgh: T&T Clark Ltd., 1997).
- Mays, James L., *Hosea* (London: SCM Press Ltd., 1969).
- McKeating, Henry, *Amos, Hosea, Mica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Rudolph, Wilhelm, *Hosea*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66).
- Sellin, Ernst/Georg Fohrer,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Nashville: Abingdon Press, 1968).
- Simundson, Daniel J., *Hosea, Joel, Amos, Obadiah, Jonah, Micah* (Nashville: Abingdon Press, 2005).
- Smith, Gary V.,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Hosea, Amos, Micah* (Grand Rapids: Zondervan, 2001).
- Sweeney, Marvin A., *The Twelve Prophets* Vol. 1 (Collegeville: The Liturgical Press, 2000).
- Weiser, Artur, *The Old Testament: Its Formation and Development* (New York: Association Press, 1961).
- Wolff, Hans Walter, *Hosea*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74). 원제 Hans Walter Wolff, *Dodekapropheten 1 Hosea*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65).
- Yee, Gale A., *Composition and Tradition in the Book of Hosea* (SBLDS 102; Atlanta: Scholars Press, 1987).

_____, “The Book of Hosea”, Leander E. Keck et al.(eds.), *The New Interpreter's Bible*
Vol. 7 (Nashville: Abingdon Press, 1996), 195-297.

검색어

호세아 4-14장, 호세아 4장 1-3절, 하나님을 아는 지식(다아트 엘로힘),
인애(헤세드), 진실(에메트)

[ABSTRACT]

Structures and Messages of Hosea 4-14: Focusing on Three Subjects

Rae-Yong Kim

Hyup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structures and messages of Hosea 4-14 with a focus on themes related to the three absences. For this purpose, this text is divided into three paragraphs focusing on the themes related to the three absences mentioned in Hosea 4:1-3, which serves as an introduction to Hosea 4-14, and will analyze the contents, structures, and expressions of each paragraph. I will select four messages and argue that they were written based on these three themes.

The first paragraph of Hosea 4-14 is 4:4-6:3, which focuses on the absence of *da'at* Elohim (knowledge of God). In this passage, four messages are found sequent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YHWH and Israel, the problem of idolatry, the problem of trust of the great powers, and the exhortation to the people, all related to the absence of *da'at* Elohim. Due to the absence of *da'at* Elohim, the covenant relationship between YHWH and Israel was broken, and problems of idolatry and trust of powerful nations arose. For this reason, the prophet recommends the people to restore *da'at* Elohim. The second paragraph of Hosea 4-14 is 6:4-11:11, which focuses on the absence of *hesed* (love). As in the previous paragraph, four messages are emphasized here, all of which are related to the absence of *hesed*.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hesed* is

www.kci.go.kr

described through the Hebrew verb 'ahab. The third paragraph of Hosea 4-14 is 11:12-14:9, which focuses on the absence of 'emet (faithfulness). Four messages are also emphasized here, all related to the absence of 'emet. In particular, the absence of 'emet is described in association with the words, lies and deception. This analysis reveals that Hosea 4-14 is not a large collection of words and poems without continuity, but a text with three structures and four common messages centered on the themes related to three absences.

key words

Hosea 4-14, Hosea 4:1-3, knowledge of God(da'at Elohim), love(hesed), faithfulness('emet)

투고일: 2023년 10월 09일

심사일: 2023년 10월 28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2일

www.kci.go.kr